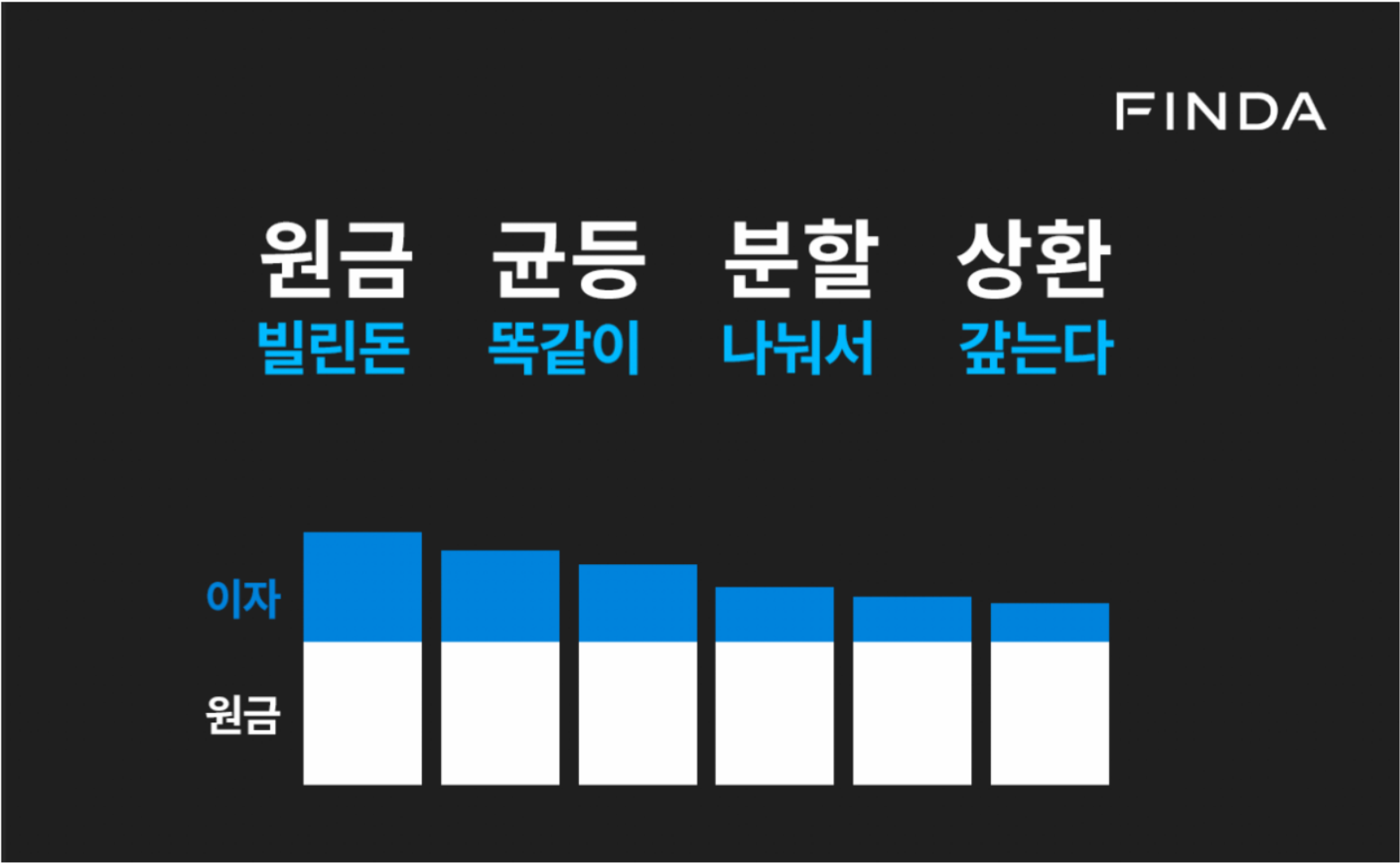


원금균등분할상환

은행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원금(빌린돈)균등(똑같이)분할(나눠서)상환(갚는다)

즉 빌린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이다.



<원금 균등 상환,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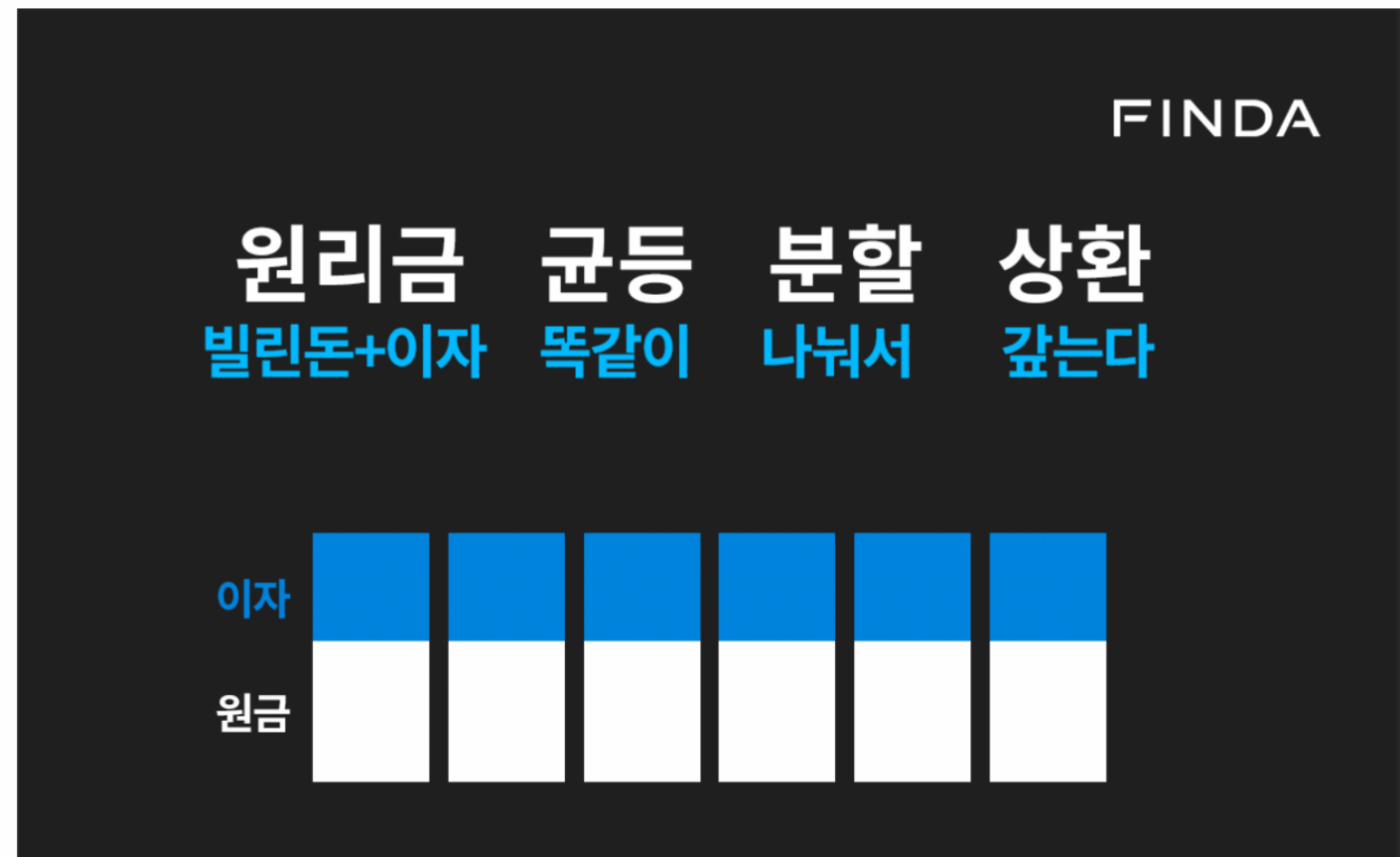
위 그림과 같이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총 빌린 금액을 개월수로 나눠서 동일하게 갚는다. 이자는 잔금(앞으로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을 기준으로 책정이되기에 매달 책정되는 이자는 달라진다. 다시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잔금은 줄어들기에 이자도 같이 줄어든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 글자가 더 늘어났다. 이걸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뜯어보면

원리금(빌린돈 + 이자) 균등(똑같이) 분할(나눠서) 상환(갚는다)

즉 빌린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이다.



<알고 보면 어렵지않은, 매월 내는 금액이 같은 상환방식, 출처: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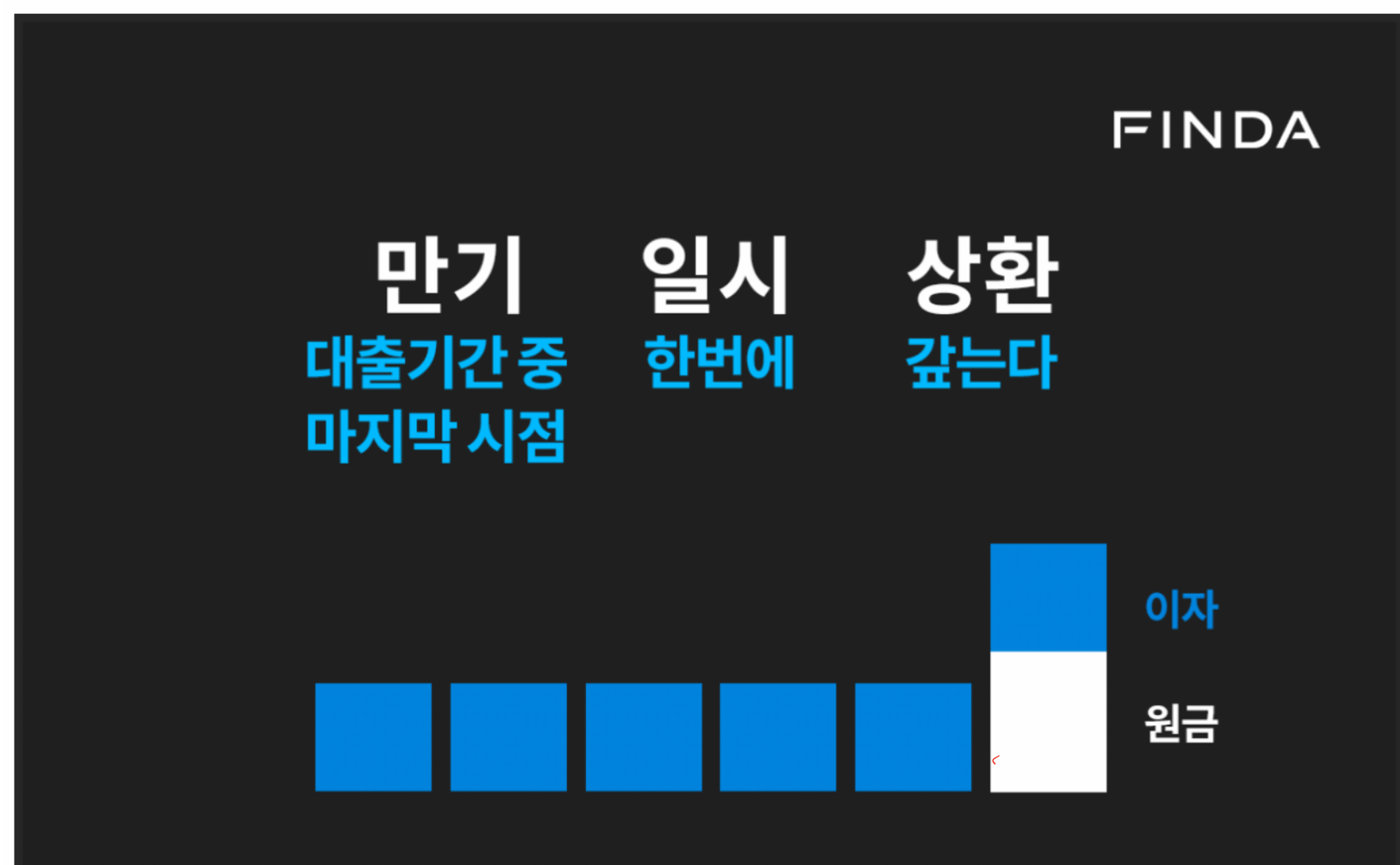
원금균등분할상환과 달리 매달 은행에 바치는돈이 같기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대출을 받고 바로 다음달 부터 갚아야 하는 금액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만기일시상환

우선 이름이 짧은게 마음에 드는 방식이다.

만기(대출기간 중 가장 마지막 시점에)일시(한번에)상환(갚는다)

~~✖~~ 한마디로 마지막에 빌린돈을 한번에 갚는 방식이다.



~~✖~~ 그래프와 같이 주구장창 이자만 납부를 하다가 마지막달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므로 얼핏보면 매달 내는돈이 적어서 혹할 수 있지만 은행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다. ~~✖~~ (즉 이자를 가장 많이 낸다). 초기 부담금이 적어서 수입이 일정치 않은경우 유리할 수 있으나 대출 만기시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환방식이다.

백만원을
연12% 6개월을 빌렸을때

FINDA

원금 균등 상환

회차	상환금 (은행에 내는돈) 이자+납입원금	납입원금 (상환금 중 빌린돈)	이자	납입원금합계 (빌린돈 중 얼마나 갚았나?)	잔금 (앞으로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
1	176,667	166,667	10,000	166,667	833,333
2	175,000	166,667	8,333	333,333	666,667
3	173,333	166,667	6,667	500,000	500,000
4	171,667	166,667	5,000	666,667	333,333
5	170,000	166,667	3,333	833,333	166,667
6	168,333	166,667	1,667	1,000,000	0

원리금 균등 상환

회차	상환금 (은행에 내는돈) 이자+납입원금	납입원금 (상환금 중 빌린돈)	이자	납입원금합계 (빌린돈 중 얼마나 갚았나?)	잔금 (앞으로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
1	172,548	162,548	10,000	162,548	837,452
2	172,548	164,174	8,375	326,722	673,278
3	172,548	165,816	6,733	492,538	507,462
4	172,548	167,474	5,075	660,012	339,988
5	172,548	169,148	3,400	829,160	170,840
6	172,548	170,840	1,708	1,000,000	0

만기 일시 상환

회차	상환금 (은행에 내는돈) 이자+납입원금	납입원금 (상환금 중 빌린돈)	이자	납입원금합계 (빌린돈 중 얼마나 갚았나?)	잔금 (앞으로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
1	10,000	0	10,000	0	1,000,000
2	10,000	0	10,000	0	1,000,000
3	10,000	0	10,000	0	1,000,000
4	10,000	0	10,000	0	1,000,000
5	10,000	0	10,000	0	1,000,000
6	1,010,000	1,000,000	10,000	1,000,000	0

이자비교

FINDA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5,000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35,291

만기 일시 상환

60,000



은행에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기준으로 보면 만기일시상환이 압도적으로 많은것을 알 수 있다.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의 기준은 앞으로 갚아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이되므로 마지막까지 원금을 꽂고있는 만기 일시상환이 초기에는 이자라는 적은 돈만 은행에 주면 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방식이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많다고 나쁜 상환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대출을 받는 목적이 다양한 만큼 각자의 재무상황이 다르기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상환방식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